

美國, 隣近諸國으로부터 重質油輸入 증가추세

OPEC 依存의 減少

최 근 美國은 中東의존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인근 美洲諸國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美國의 原油輸入量은 西半球에 속하는 亞美利加諸國에 대한 의존도가 2 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거의 두배로 증가, 1981년에 그 輸入比重이 23% 였으나, 현재는 44% 로 늘어났다. 원유 및 제품을 합한 총 석유수입물량 중 서반구의 비중은 38% 였으나, 1983년 현재는 56% 까지 상승했다 (1983년은 1 월부터 8 월까지의 실적임).

실제로, 원유 및 제품을 합한 美國에 대한 3 대 석유공급국은 서반구 인근제국인 멕시코, 캐나다, 베네수엘라의 順이다. 이것은 사우디가 美國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었고, 나이지리아가 그 두번째였던 1981년과 비교하면 가장 극적인 변화이다.

1982년 이후 OPEC 회원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OPEC 제국으로부터 하루 수입량 중 49.7% 를 들여 왔고, 1983년 8 월까지는 40.8% 로 줄어 들었다. 더욱이 中東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는 1982년 전체 원유수입의 21% 에서 1983년에 13% 까지 감소되었다.

최근 수년간 美國의 석유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석유수요의 減退와 국내산 원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데 기인한다. 美國의 정유공장은 점차 重質油를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量과 質의 兩者가 美國의 西半球 수입시장 판도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제품 전체에 대한 수요감퇴와 증질제품보다 더 많은 경질제품 수요에 점진적으로 적응시키고 있는 美國의 정유공장들은 두 가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나는 원유처리량 감소이고, 또 하나는 경질원유보다 증질원유 비율이 증가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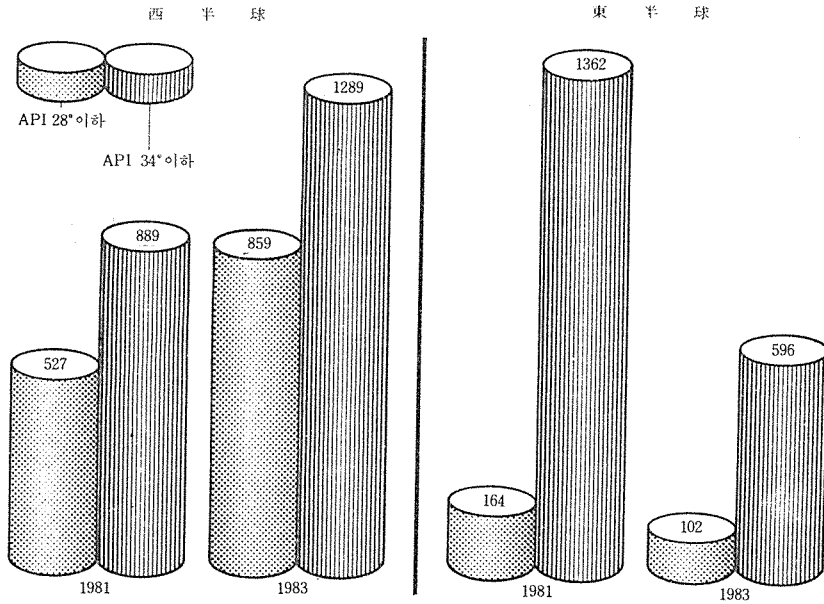
重質原油의 도입증가

공장시설 개조에 투입된 막대한 투자비는 정제이윤의 개선으로 커버하고 있다. <表-1>은 美國수입량 중, API 28° 이하의 원유와 API 34° 이하의 원유의 量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자에는 알라스카 노쓰 스톱우드와 아라비안 헤비와 같은 中質원유를 포함시키고, 후자에는 OPEC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와 멕시코産 이쓰무스와 같은 中·輕質원유가 포함되고 있다. <表-1>은 또한 서반구에서 수입한 中質 및 重質油가 63% 증가한 반면, 동반구로부터의 API 28° 이하의 같은 비중범위의 原油수입량은 38%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PI 34° 보다도 輕質인 원유수입량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즉 서반구가 美國에 공급한 양은 1981년에 API 34° 이상의 범위의 수입량이 6% 에서 1983년에 9% 로 증가하였다. 東半球은 여전히 美國이 수입한 전체 경질원유의 91% 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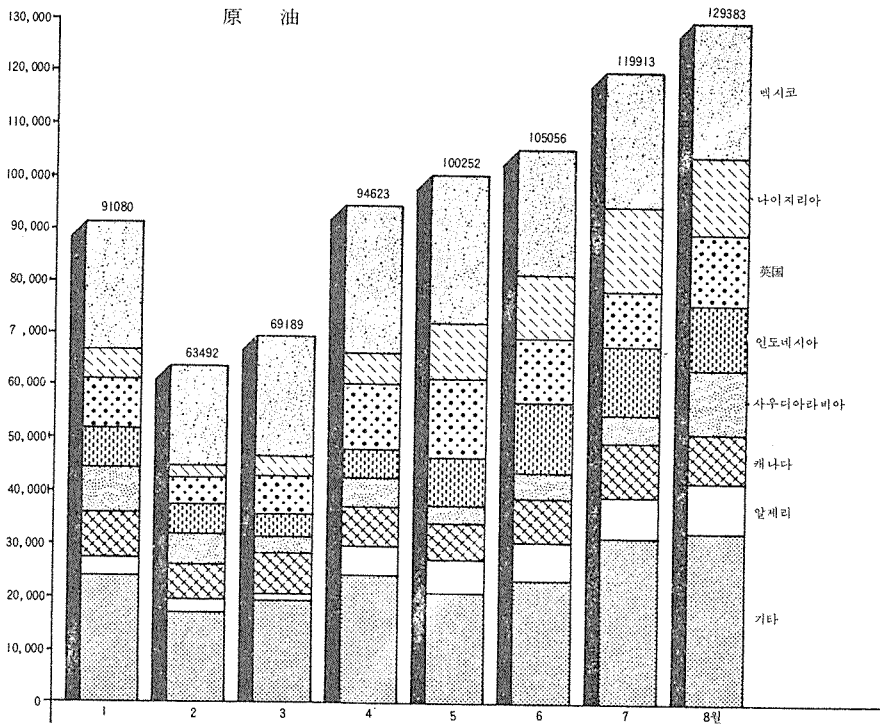
<表-2>, <表-3>에는 최신의 美國의 원유 및 제품의 量과 市場占有率에 관한 수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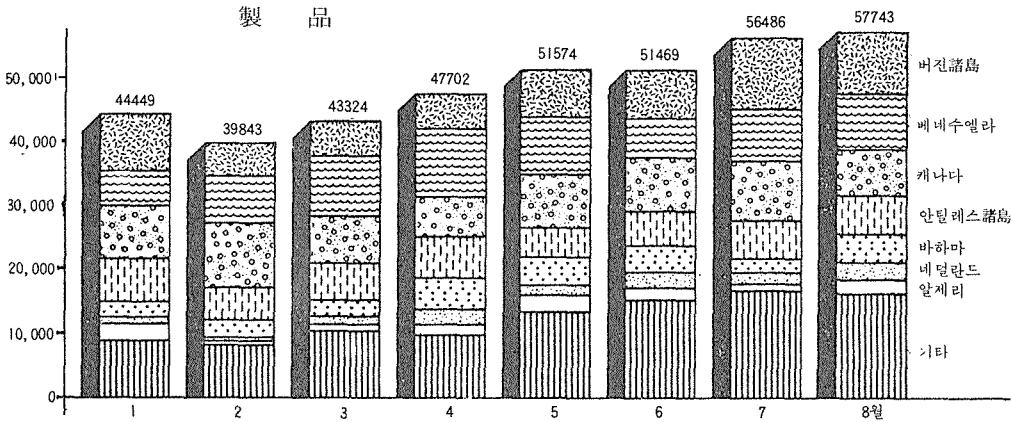
〈表-1〉 美国의 半球別 輸入量 (단위: 千B/D)



註1) : 1983년은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임.
 (資料) 미국에너지청, 미국석유협회

〈表-2〉 美国의 7大石油 供給国 (1983년) (단위: 千배럴)





(資料) 미국에너지성

西半球 对 東半球의 物量比較

美国석유협회(API)가 분석·제공한 미국에너지성 자료는 <表-4>와 같은等級別 物量比較를 보여주고 있다(카리브연안국 중, 석유정제국은 제외하고 산유국만이 리스트에 올라있음).

主要 石油製品 輸入国

<表-2>중, 아래 도표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美国의 주요 7대 석유제품 수입국을 나타내고 있다. 美国은 총석유수요의 29%를 수입하고 있는데 비해 석유제품은 전체수요량의 11%만을 수입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국 중, 캐나다가 首位이고(6610만 배럴: 83.1~8)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바짝 뒤쫓고 있다(6550만 배럴). 대부분의 제품수입원은 비 OPEC諸국인 바 전체 수입물량 3억 9260만 배럴 중, 3억 40만 배럴을 차지하고 있다.

세가지 제품(휘발유, 경유, 잔사연료유)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보면, 버진諸島 및 네덜란드가 금년 현재까지 주요 휘발유공급국이었고, 경유는 버진諸島 및 베네수엘라가 최대의 공급국이었다.

美国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산유국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1983년 8월에 180만 배럴로서 1위였고, 네덜란드가 89만 배럴, 中共이 66.1만 배럴, 캐나다가 55만 배럴이다. 경유를 공급하는 산유국 중에서는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가 8월에 각각 150만

배럴로 1위이고, 캐나다가 120만 배럴로 그 다음이다. 멕시코는 8월에 35.5만 배럴을 공급했다. 미국의 경유수입량은 8월에 930만 배럴이다.

8월 중에, 美国에 대한 잔사유 최대공급국은 베네수엘라로서 총 2,190만 배럴 수입량 중에 520만 배럴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안틸레스諸島, 버진諸島, 알제리, 바하마의 順이다. 산유국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의 順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경유 및 잔사연료유의 1983년 8월 수입량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는데, 1982년 8월의 경유수입량은 250만 배럴이었고, 잔사유수입량은 1,710만 배럴이었다. 그러나 휘발유수입량은 약 1백만 배럴 가량 줄어 들었다.

主要 原油輸入 西半球諸国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国이 멕시코, 캐나다,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평균물량은 1981년 이래 重質化하여 왔다. 1981년과 1983년의 수입량의 차이를 보면, 美国의 중질원유사용국들을 대체로 알 수 있다.

1982년 4월 이래로 美国의 주요수입국이 된 멕시코는 또한 戰略石油備蓄用 原油(SPR)의 최대공급국이 되고 있다. 1981년 중, 멕시코 원유를 수입한 주요 7대 수입선은 셸 오일, SPR, 엑슨그룹, 아모코 오일, 어틀랜틱 리치필드, 클라크 오일, 리파이닝, 모빌 오일 등이다. 그 해 멕시코 원유

(表-3) 美国石油輸入 실적 및 市場占有率(原油 및 製品)

物 量

(단위 : 千배럴/日)

国 别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83 1-8
멕시코	16	8	71	87	179	318	439	533	522	685	854
캐나다	1,325	1,070	846	599	517	467	538	455	447	482	539
베네수엘라	1,135	979	702	700	690	645	690	481	406	412	415
英國	15	8	14	31	126	180	202	176	375	456	365
인도네시아	213	300	390	539	541	573	420	348	366	248	317
나이지리아	459	713	762	1,025	1,143	919	1,080	857	620	514	294
버진諸島	329	391	406	422	466	429	431	388	327	316	251
알제리	136	190	282	432	559	649	636	488	311	170	231
사우디	486	461	715	1,230	1,380	1,144	1,356	1,261	1,129	552	211
안틸레스諸島	585	511	332	275	211	229	231	225	197	175	190
바하마	0	0	0	0	0	0	0	0	74	65	112
트리니다드·토바고	255	251	242	274	289	253	190	176	133	112	92
노르웨이	0	1	12	35	48	104	75	144	119	102	76
에콰도르	47	42	57	51	54	41	42	25	48	42	61
이란	223	469	280	298	535	555	304	9	0	35	56
아랍토후국	71	74	117	254	335	385	281	172	81	92	27
리비아	164	4	232	453	723	654	658	554	319	26	0
기타	797	640	595	608	1,011	819	883	617	520	629	707
世界合計	6,256	6,112	6,055	7,313	8,807	8,364	8,456	6,909	5,995	5,113	4,797

市場占有率

(단위 : %)

国 别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83 1-8
멕시코	0.26	0.13	1.17	1.19	2.03	3.80	5.19	7.71	8.71	13.39	17.81
캐나다	21.18	17.51	13.97	8.19	5.87	5.58	6.36	6.59	7.46	9.43	11.24
베네수엘라	18.14	16.02	11.59	9.57	7.83	7.71	8.16	6.96	6.77	8.05	8.65
英國	0.24	0.13	0.23	0.42	1.43	2.15	2.39	2.55	6.26	8.91	7.61
인도네시아	3.40	4.91	6.44	7.37	6.14	6.85	4.97	5.04	6.11	4.86	6.60
나이지리아	7.34	11.67	12.58	14.02	12.98	10.99	12.77	12.40	10.34	10.05	6.12
버진諸島	5.26	6.40	6.71	5.77	5.29	5.13	5.10	5.62	5.45	6.18	5.23
알제리	2.17	3.11	4.66	5.91	6.35	7.76	7.52	7.06	5.19	3.32	4.81
사우디	7.77	7.54	11.81	16.82	15.67	13.68	16.04	18.25	18.83	10.79	4.39
안틸레스諸島	9.35	8.36	5.48	3.76	2.40	2.74	2.73	3.26	3.29	3.42	3.96
바하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4	1.27	2.33
트리니다드·토바고	4.08	4.11	4.00	3.75	3.28	3.02	2.25	2.55	2.22	2.19	1.93
노르웨이	0.00	0.02	0.20	0.48	0.55	1.24	0.89	2.08	1.98	2.00	1.58
에콰도르	0.75	0.68	0.94	0.70	0.61	0.50	0.49	0.36	0.81	0.82	1.27
이란	3.56	7.67	4.62	4.07	6.07	6.64	3.60	0.13	0.00	0.69	1.18
아랍토후국	1.13	1.21	1.93	3.47	3.80	4.60	3.32	2.49	1.35	1.80	0.56
리비아	2.62	0.07	3.83	6.19	8.21	7.82	7.78	8.02	5.32	0.50	0.00
기타	12.74	10.48	9.83	8.31	11.48	9.79	10.45	8.93	8.68	12.31	14.74
世界合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미국에너지성

(表-4) 美國의 原油輸入國別, 平均API 等級

【1981년】

西 半 球

캐나다	36.40	페루	32.04
에콰도르	29.00	트리니다드·토바고	31.98
멕시코	27.82	베네수엘라	18.41
		평균 API°	27.90

東 半 球

알제리	45.81	노르웨이	43.13
앙골라	32.40	오만	35.41
카메룬	34.19	카타르	35.96
콩고	27.31	사우디아라비아	32.95
이집트	32.50	시리아	24.06
가봉	31.89	튀니지	42.22
가나	39.98	아랍토후국	37.07
인도네시아	34.94	英國	36.82
리비아	38.70	자이레	31.15
말레이시아	35.39	평균 API° :	35.81
나이지리아	34.95		

【1983년 1 ~ 8 월】

西 半 球

볼리비아	59.00	페루	28.21
캐나다	29.68	트리니다드·토바고	32.88
에콰도르	29.44	베네수엘라	13.55
멕시코	26.79	평균 API° :	26.47

東 半 球

알제리	51.15	말레이시아	39.47
앙골라	32.81	중립지대	27.24
브루나이	35.19	나이지리아	35.40
카메룬	33.20	노르웨이	42.25
콩고	26.95	오만	34.68
이집트	30.46	사우디아라비아	32.07
가봉	30.89	튀니지	38.86
인도네시아	36.28	아랍토후국	36.90
이란	32.19	英國	37.07
이라크	35.45	자이레	31.49
쿠웨이트	18.90	평균 API° :	36.61

를 수입한 회사는 총 29개였다.

198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주요 7대 수입선은 SPR, 셀 오일, 마라톤 오일, 아모코 오일, 어틀랜틱 리치필드, 셰브론 유 에스 에이, 텍사코 등이었고, 모두 22개 회사가 수입선이었다.

캐나다 원유 수입선은 1981년 14개에 달하였고, 1983년에는 24개였다. 두 기간 중, 코호 인더스트리즈가 최대의 수입선이었다.

베네수엘라는 1981년 1월말에 24개의 수입선을 가졌었고, 1983년(1 - 8월)에는 22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기간 중 Amoco가 제일 많이 수입한 회사였다.

要約

1) 1983년 1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美國의 원유수입량을 보면, 점차 重質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西半球 産油國에의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2) 東半球 수입선의 평균원유비중이 API 36.6° 인데 비해서 西半球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약 API 26.5°였다.

3) 멕시코는 여전히 美國 원유수입의 최대공급국이고, 평균비중이 1° 이상 중질화되어 API 26.8°까지 되었는데 이것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重質原油이다.

4) 베네수엘라는 美國 원유수입국 중 8번째로서 2년전의 평균 API 18.4°와 비교해서 현재는 API 13.6°를 공급하고 있다.

5) 캐나다는 서반구공급국 중 세번째로 경질유를 많이 공급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1981년 API 36.4°에서 금년엔 29.7°로 떨어졌다.

6) 美國 석유수입 비율에 있어 서반구에의 의존성이 증가한 사실은, 中東 의존의 감소를 뜻하고, 또한 더욱 重質이고 더욱 풍부한 서반구 원유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미국정제공업의 발전을 뜻한다.

7)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공급과잉이었던 1981년 이래로 美國 수입시장은 더욱 경제적이고 공급안정적인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왔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호 아메리카제국 사이의 경제체제의 향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